직업을 소명이라 인식(67%)하나, 일터 신앙 실천(36%)과의 간극 크다!

오늘날 기독교인 직장인 상당수(67%)는 직업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소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성도들이 매일 살아가는 일터 현장에서의 신앙 실천은 여전히 큰 한계와 갈등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직장사역훈련센터·일터개발원·청지기캠프·솔로몬일터교회·목회데이터연구소는 기독교인 직장인, 직장 신우회 활동자, 비기독교인 직장인, 담임목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터 사역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 결과를 이번 호부터 다음 호까지 2회에 걸쳐 연속으로 다루고자 한다.

주요 결과를 보면 기독교인 직장인 절대다수(91%)가 일터 신앙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경험은 28%에 불과했다. 또한, 일터 신앙 지원 방안으로 직장인들은 실질적 상담(37%)을 갈망하는 반면, 목회자는 설교(50%)를 꼽아 현장과 목회자 간의 시각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넘버즈 358호〉에서는 기독교인 직장인의 직업 소명 의식과 일터 신앙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성도들의 일터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교회가 준비해야 할 실질적인 목회적 지원 방향을 모색해 본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는 가톨릭으로 기재합니다.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터 신앙 실태 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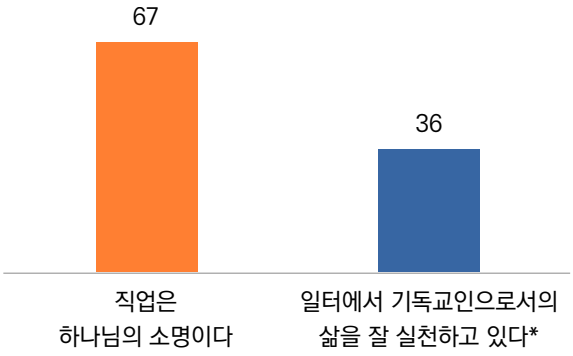
구분	기독교인 직장인	신우회 활동자	비기독교인 직장인	담임목회자
조사 대상	만20세~59세 기독교인 직장인	만20세~59세 신우회 활동자 직장인	만20세~59세 비기독교인 직장인	전국교회 담임목회자
표본 규모	500명(유효표본)	205명(유효표본)	500명(유효표본)	500명(유효표본)
표본 추출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비례할당	편의추출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비례할당	편의추출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4.4%p	-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4.4%p	-
조사 기간	2026년 8월 3일~8월 10일(총 8일)	2026년 8월 3일 ~8월 20일(총18일)	2026년 8월 3일 ~8월 10일(총8일)	2026년 8월 3일 ~8월 19일(총17일)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온라인 패널 이용)	온라인 조사 (온라인패널 및 신우회 네트워크를 통한 URL 배포)	온라인 조사 (온라인 패널 이용)	모바일 조사 (문자를 통한 URL배포)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담임목회자 조사는 교회 규모에 따른 가중치 부여)			
조사 의뢰 기관	일터개발원직장사역훈련센터 · 일터개발원 · 목회데이터연구소 · 청지기캠프 · 솔로몬일터교회			
조사 기관	주식회사 지앤컴리서치			

01 [일터 신앙의 현실]

직업을 소명이라 인식(67%)하나, 일터 신앙 실천(36%)과의 간극 크다!

- 기독교인 직장인의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직업은 소명'(67%)이라는 인식은 높은 반면, 실제 '일터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비율(36%)은 이에 미치지 못해 인식과 실천 사이의 괴리를 보였다.

[그림] 직업 소명 의식과 일터 신앙 실천의 간극 (각각 동의율, 기독교인 직장인,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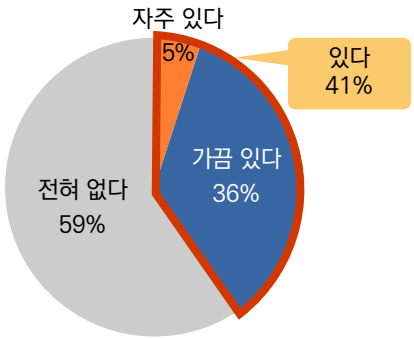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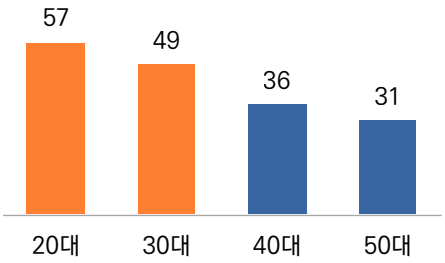
크리스천 직장인 10명 중 4명(41%), 기독교인임을 숨긴 적 있다!

- 직장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숨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1%(가끔+자주)로 10명 중 4명꼴에 달했다.
- 특히 연령별로 보면 20대(57%)와 30대(49%)의 '숨김 경험' 비율이 40~50대(30%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젊은 직장인 층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다.
- 이는 사회초년생의 낮은 연차와 직장 내 눈치, 혹은 세속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신앙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림] 기독교인임을 숨긴 경험 여부
(기독교인 직장인, 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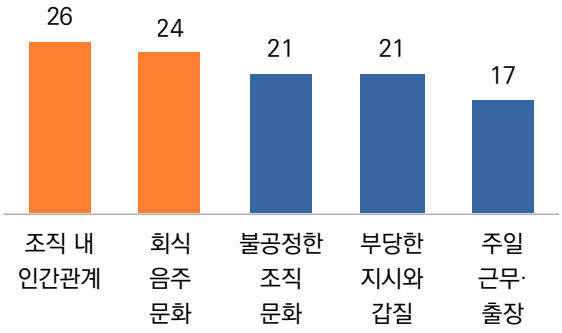
[그림] 기독교인임을 숨긴 경험 '있다' 비율
(연령별, 기독교인 직장인,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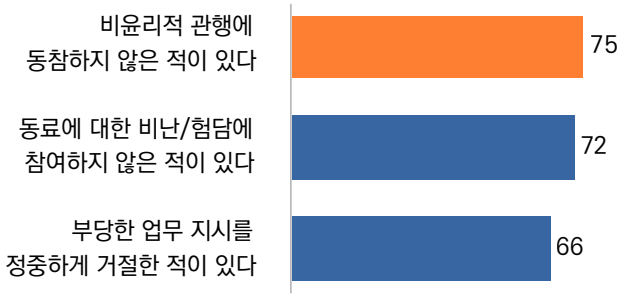
일터 갈등 속에서도, 크리스천 3명 중 2명 이상 '신앙적 소신' 지켰다!

- 일터에서 겪는 신앙적 갈등 요소로는 '조직 내 인간관계'(26%), '회식·음주 문화'(24%), '불공정한 조직 문화'(21%), '부당한 지시와 갑질'(21%) 등이 다양하게 지목됐다.
- 이러한 일터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 직장인 3명 중 2명 이상은 '비윤리적 관행 동참 거부'(75%), '동료 험담 불참'(72%), '부당한 지시 거절'(66%)을 통해 일터에서 신앙적 기준을 지켜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일터에서 경험한 신앙적 갈등
(기독교인 직장인, 1+2순위, 상위 5개, N=500, %)



[그림] 일터에서 신앙적 기준을 지킨 경험
(기독교인 직장인, '그렇다' 비율,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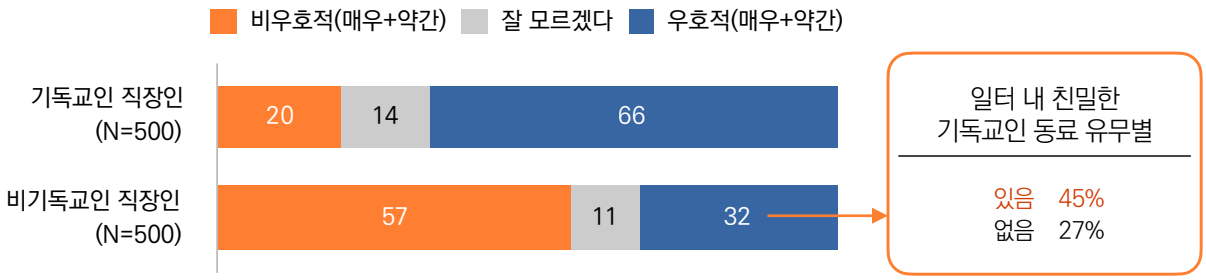


02 [비기독교인이 바라본 기독교인 직장인]

비기독교인 직장인,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다'!

- 일터 내 동료들이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태도를 물은 결과, 기독교인 직장인은 66%가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실제 비기독교인의 우호적 응답률은 기독교인 직장인들의 예상과 달리 32%로 절반에 그쳤다.
- 흥미롭게도 '일터 내 친밀한 기독교인 동료가 있는' 비기독교인의 우호도(45%)는 없는 경우(2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터에서 맺는 관계의 친밀함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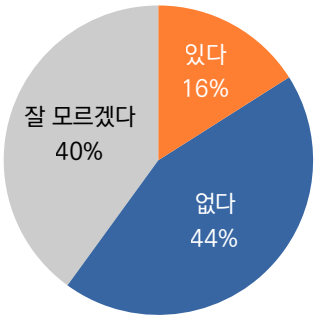
[그림]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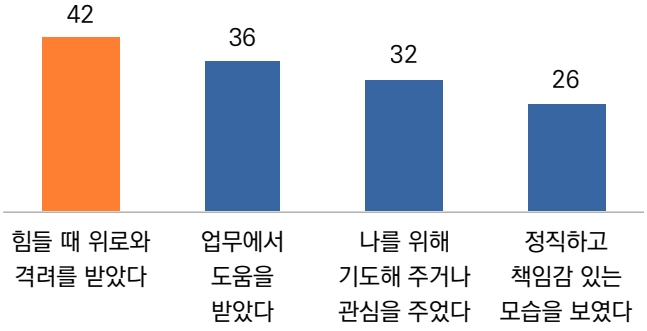
기독교인 동료의 '힘들 때 위로', 기독교에 호감 요인!

- 비기독교인 직장인 중 일터 내 기독교인 동료에게 도움이나 좋은 인상을 받은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 긍정적 경험 내용으로는 '힘들 때 위로와 격려를 받음'(42%), '업무에서 도움을 받음'(36%), '기도와 관심'(32%)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일터에서 전하는 관심과 지원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형성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그림] 기독교인 동료로부터 긍정적 경험 유무 (비기독교인 직장인, 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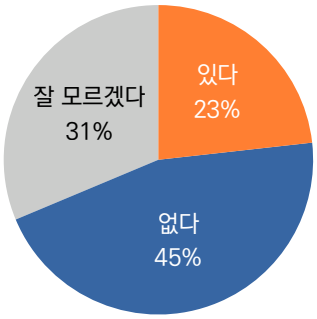
[그림] 긍정적 경험 내용 (긍정적 경험을 한 비기독교인 직장인, N=78, 상위 4개, %)



전도·언행 불일치 태도, 기독교에 부정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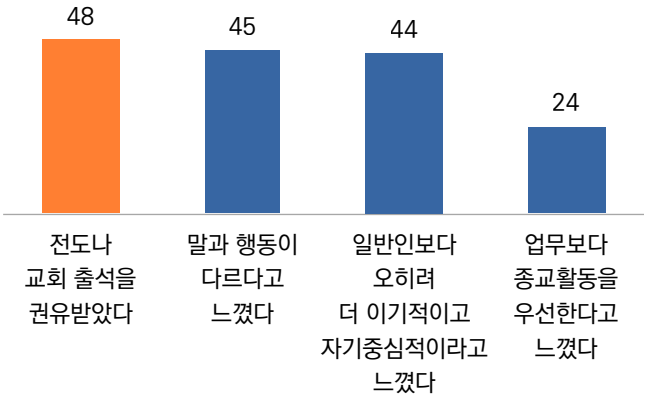
- 비기독교인 직장인 중 일터 내 기독교인 동료로부터의 부정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 부정적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기독교인이 꼽은 주된 내용으로는 '전도나 교회 출석 권유를 받음'(48%),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느낌'(45%), '일반인보다 더 이기적·자기중심적임'(44%)이 각각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는 일방적인 전도 방식이나 언행 불일치, 이기적 태도 등 이중적인 모습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그림] 기독교인 동료로부터 부정적 경험 유무 (비기독교인 직장인, N=500)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그림] 부정적 경험 내용 (부정적 경험을 한 비기독교인 직장인, N=117, 상위 4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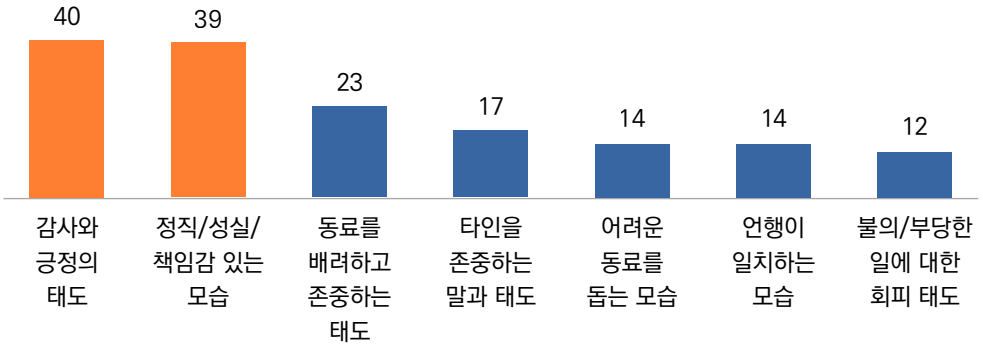


03 [일터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의 모습]

일터에서 기독교인다운 모습, '감사·긍정의 태도'와 '정직·성실'!

- 일터에서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으로 '감사와 긍정의 태도'(40%)와 '정직·성실·책임감 있는 모습'(39%)이 나란히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동료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23%), '타인을 존중하는 말과 태도'(17%) 등의 순이었다.
- 이는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일터 선교의 핵심으로 종교적 행위보다 태도와 성실성, 인격적 배려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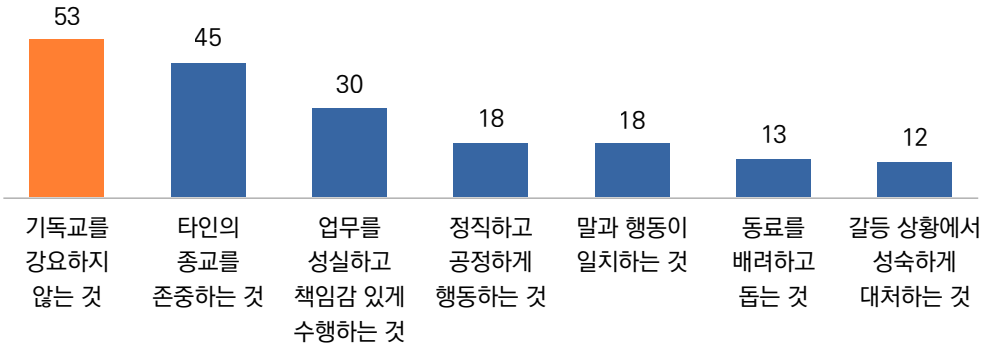
[그림] 일터에서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모습 (기독교인 직장인, N=500, 1+2순위, 상위 7개, %)



비기독교인의 기대, '종교 강요는 피하고, 업무 성실·책임감 보여달라'!

- 일터 내 기독교인이 신뢰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행동으로 비기독교인 직장인은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는 것'(53%)을 가장 높게 꼽았다. 다음으로 '타인의 종교를 존중하는 것'(45%), '업무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30%) 등이 뒤를 이었다.
- 즉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 동료에게 원하는 핵심은 일터에서 신앙적 성향을 강제하기보다 타인을 존중하며, 본업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앞선 기독교인 직장인 응답과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일터 내 기독교인이 신뢰받기 위한 행동 (비기독교인 직장인, N=500, 1+2순위,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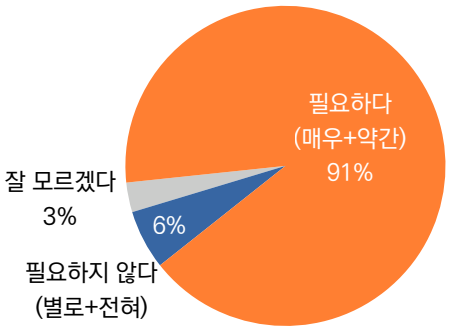


04 [교회의 역할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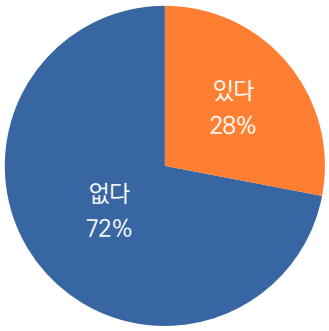
일터 신앙 교육 필요성 91%... 실제 교육 경험은 28%에 불과!

- 일터 신앙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기독교인 직장인 10명 중 9명(91%)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매우 높은 욕구를 보였다.
- 그러나 최근 1년간 일터 신앙생활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은 28%에 불과해, 필요도에 훨씬 못 미쳤다.

[그림] 일터 신앙 교육·훈련의 필요성
(기독교인 직장인, 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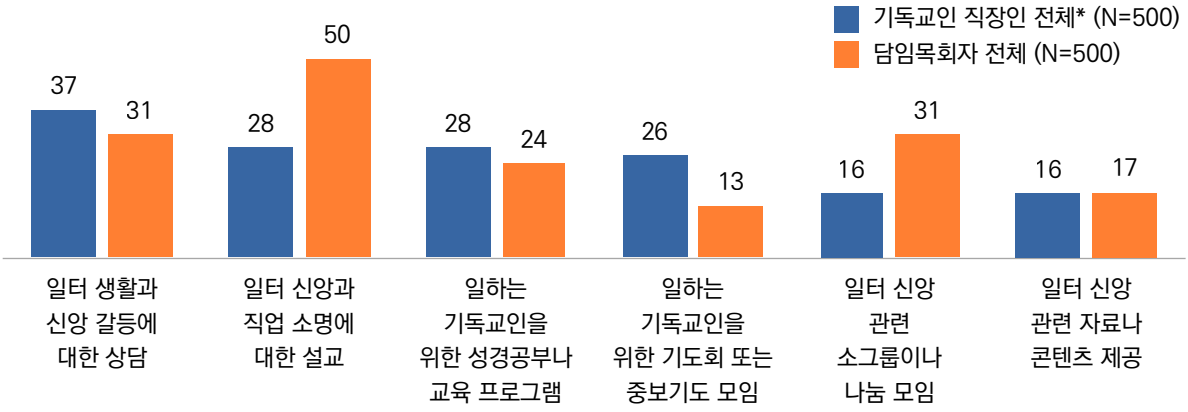
[그림] 최근 1년간 일터 신앙생활 관련 교육·훈련 경험 여부
(기독교인 직장인, N=500)



일터 신앙 지원 방안, 직장인은 '상담' vs 목회자는 '설교' 인식 높아!

- 일터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기독교인 직장인은 '일터 생활과 신앙 갈등 상담'(37%)을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담임목회자는 '일터 신앙과 직업 소명 설교'(50%)를 1순위로 꼽아 시각 차를 보였다.
- 이는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겪는 신앙적 갈등을 털어놓고 구체적인 대안을 나눌 실질적 상담 지원에 더 큰 갈증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회는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상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림] 직장인의 일터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 (1+2순위, 상위 6개, %)



*기독교인 직장인 질문은 '귀하는 일터에서 겪는 신앙적 갈등을 위해 교회나 목사님이 어떤 도움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임

넘버즈 인사이트

이번호 요약

1. 직업을 소명이라 인식(67%)하나, 일터 신앙 실천(36%)과의 간극 크다!

기독교인 직장인의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직업은 소명'(67%)이라는 인식은 높은 반면, 실제 '일터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비율(36%)은 이에 미치지 못해 인식과 실천 사이의 괴리를 보였다.

2. 일터 신앙 교육 필요성 91%... 실제 교육 경험은 28%에 불과!

일터 신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기독교인 직장인 10명 중 9명(91%)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매우 높은 욕구를 보였으나, 최근 1년간 일터 신앙생활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은 28%에 불과했다.

3. 일터 신앙 지원 방안, 직장인은 '상담' vs 목회자는 '설교' 인식 높아!

일터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기독교인 직장인은 '일터 생활과 신앙 갈등 상담'(37%)을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담임목회자는 '일터 신앙과 직업 소명 설교'(50%)를 1순위로 꼽아 시각차를 보였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팀 켈러의 일과 영성 (팀 켈러 저, 두란노서원)

관련 성경 구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24절)

목회 적용점

이번 일터 신앙 실태 조사 결과는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식(67%)하고 있음에도, 실제 일터에서의 신앙 실천(36%) 및 일터 신앙 교육 경험(28%)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세속적 조직문화와 갈등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적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일터 신앙 지원에 있어 목회자는 주로 '설교'(50%)를 떠올리지만, 직장인들은 구체적인 '신앙 갈등 상담'(37%)을 원하고 있어 목회적 시각 차이를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대안에 주목해야 한다.

일터의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찾는 실질적 상담 시스템 구축이다. 주일 설교를 넘어, 이제는 성도들이 일터에서 매일 부딪히는 구체적인 신앙 갈등과 윤리적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일터 멘토링 데이'나 '직장인 고충 나눔 소그룹' 등을 개설하여 목회자나 전문 사역자가 성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경청하고 세속적 유혹 속에서 성경적 대안을 찾도록 돕는 맞춤형 코칭 창구가 상시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회가 성도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품고 실질적인 힘이 되어줄 때, 비로소 주일의 신앙이 월요일의 일터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